


| | | | | | |
|---|--------|--|---|--|--|
|  인천광역시 | | 보 도 자 료 | |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 |
| | | | | | |
| 배포일자 | | 2023년 4월 27일(목) 총 6매 | | | |
| 담당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 당 자 | • 기획팀장 이규석 ☎440-2131 • 담당자 정경숙 ☎440-2132 | | |
| 사진(이미지) |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 보 도 시 점 | | 15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유정복 시장, 현장 전문가들과 민생현안 해결방안 논의

- 제1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개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 민생현안과 시민 목소리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지역의 민생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행보가 본격화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7일 소상공인, 공인중개사, 변호사, 복지사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생특위는 최근 발생한 공공요금·생활물가 급등, 전세 사기 피해 등 기존의 행정영역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생특위는 유정복 시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덕수 행정부시장과 안귀옥 변호사가 공동부위원장을 맡았다. 또, 민생경제지원반, 생활안

전대책반, 서민복지대책반 등 3개 분야 반(班)을 편성하고, 각 분야별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 21명과 소관 실·국장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민생특위 개최 시 안전 취지에 따라 위원 외에 다른 전문가를 추가 초빙해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특위에서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이슈 발굴, 사전진단과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 통해 민생특위를 종합적인 대응체계로 구축하여, 행정적 조치를 넘어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특단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처음 개최된 이날 민생특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 방안,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대책,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민생특위 위원들은 시의 정책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각 안전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과 추가적인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도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민생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다짐했다.

유정복 시장은 “민생특위를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넓게 보고 깊이 고민하겠다.” 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고 했다.

< 참고 > 1. 민생안정특별위원회 구성

2.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촉직 위원 현황

참고 1

민생안정특별위원회 구성

□ 기능 및 구성

- (기능) 선제적 의제선정 및 일상의 행정적 조치를 넘어 특단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
- (구성 방향)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현장 전문가로 구성 및 운영
- (구성) 총 30명 내외
 - (당연직) 시장(위원장),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수석, 시민안전본부장, 경제산업본부장, 미래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 (위촉직) 분야별 현장전문가, 유관기관 등 21명 선정

